



SK에너지, 2분기 매출 8조 9,287억원, 영업이익 1,776억원

SK에너지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글로벌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 및 정제마진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는 지난 7월24일 오전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09년 2분기 실적설명회'를 통해 매출액은 8조 9,287억원, 영업이익은 1,7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이익은 환차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 늘어난 3,014억원을 기록했다.

SK에너지의 전체 영업이익 하락은 주력사업인 석유사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SK에너지는 석유사업에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5조 8,304억원을 기록했으며 68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석유사업의 분기 손실은 2006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단순정제마진과 크래킹 마진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SK에너지는 설명했다.

SK에너지는 지난 7월 24일 오전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09년 2분기 실적설명회'를 통해 매출액은 8조 9,287억원, 영업이익은 1,776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 67%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이익은 환차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보다 16% 늘어난 3,014억원을 기록했다.

구지영 사장, 제빵 봉사활동 펼쳐



SK에너지 구지영 사장이 일일 제빵사로 변신해 지난 6월16일 사회복지시설 은평의 마을을 찾아 제빵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은평의 마을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 남성 1,400여명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마리아 수녀회가 서울시에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날 일일 제빵사로 변신한 구지영 사장은 시설 생활인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에서부터 빵 굽기 등 제빵체험을 함께하며 훈훈

한 시간을 보내고 복지시설 사람들과 함께 갓 구운 빵을 함께 시식하고, 산책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SK에너지·포스코 등 민·官·研, 청정석탄에너지 공동 개발



SK에너지 등 민·官·研 19개 기관이 미래 그린에너지 공동 개발에 본격 나선다.

SK에너지는 지난 7월24일 오후 지식경제부, 포스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공동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청정 석탄에너지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자영 SK에너지 사장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참여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청정 석탄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주체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SK에너지는 청정 석탄에너지 기술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석탄가스화 공정' 개발을 중심으로, 포스코는 뒷 부분에 해당하는 '합성천연가스 공정'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등 참여기관은 양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SK에너지, 유탄유사업 분할

SK에너지가 자사의 유탄유사업을 100% 자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7월16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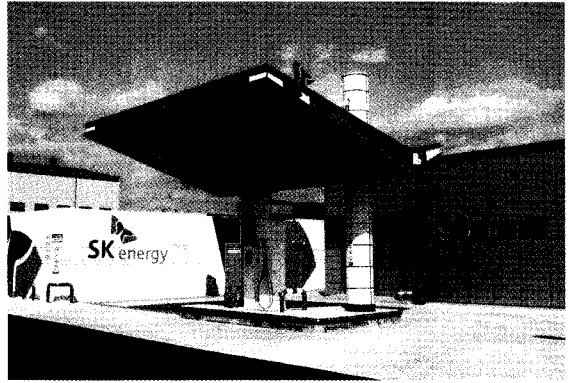
SK에너지는 이날 오후 유탄유사업 분할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10월1일부로 분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분할 형식은 물적분할 방식으로 결정했다. 물적분할은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경쟁심화라는 경영 환경 속에서 SK에너지는 생존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경제 회복기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경쟁력 확보방안을 검토해 오던 중,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거쳐 유탄유사업 분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암동 수소스테이션 건설에 참여

SK에너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수소스테이션 건설사업자 입찰에서 SK건설과 함께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고 지난 7월28일 밝혔다.

수소 스테이션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에 석유연료나 LPG를 충전하듯이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다. 이번에 건설되는 SK에너지의 수소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인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가스를 별도의 저장장치를 이용해 포집한 후, 매립가스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미래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 매립가스를 제거하는 친환경 설비로 평가되고 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참여는 SK에너지가 기존 정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는 디딤돌의 하나"라며, "미래에너지를 책임지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産·學, 그린에너지 개발 공동 협력

SK에너지는 지난 7월17일 포스텍과 기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그린에너지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SK에너지 박상훈 P&T 사장과 포스텍 백성기 총장은 지난 7월 17일 포항 포스텍 대학본부에서 '그린에너지 공동 연구 수행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SK에너지와 포스텍은 앞으로 5년간 태양 전지, 바이오연료 등의 '미래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한편, 양 기관의 시설과 장비로 함께 활용하게 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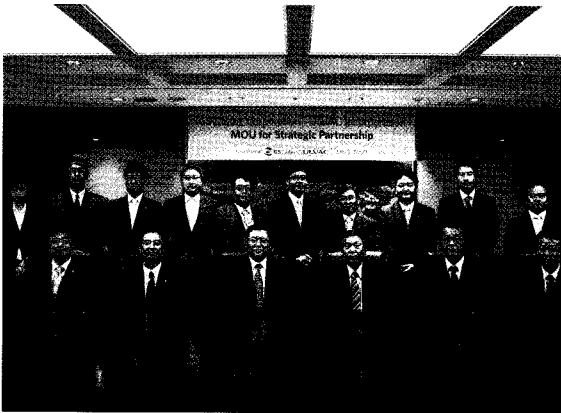
SK에너지 박상훈 P&T 사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선도해온 SK에너지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포스텍의 만남은 미래 한국의 에너지 분야 발전에 든든한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에너지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국가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 지원



GS칼텍스가 중동의 오만에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전수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3일 저녁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전상호 생산본부장과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 오만국영석유회사 알 킨디(Dr. Al Kindy)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만국영석유회사 소하르 공장에서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포괄적 3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GS칼텍스, ULVAC과의 기술 교류회 및 MOU 체결



GS칼텍스는 지난 7월 3일 본사에서 허동수 회장과 ULVAC 나카무라(Nakamura)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양사의 박막전지 관련 신기술 및 개발 동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허동수 회장은 ULVAC과의 공동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후 주요 비즈니스 현안과 태양전지 등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는 등 양사 간

의 우의를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GS칼텍스는 성공적인 박막전지의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 장비 회사인 ULVAC과 지난 4년간 양산 기술 개발 협력 및 기술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상부두 유증기 회수장치(VRU) 준공

GS칼텍스는 지난 6월 10일, 여수공장에서 해상부두 유증기 회수장치(VRU) 준공식을 가졌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국내정유업계 최초로 육상이 아닌 해상 부두에 유증기 회수장치(VRU)를 완비한 것은 환경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참석하 임직원에게 “미래를 향한 GS칼텍스의 녹색경영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석유류 제품의 선박 적재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회수하는 설비로, 선박 적재 시 안전성뿐만 아니라 회수된 유증기를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 보존에도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동수 회장, 제9회 에너지 포럼 진행



제9회 에너지 포럼이 지난 6월 4일 조선호텔에서 '그린에너지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 및 성장 둔화, 에너지위기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그린에너지 산업을 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허동수 회장이 진행자로 나선 이번 포럼에는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이 발제자로 나왔으며, 김동환 고려대 교수,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사장, 이임택 한신에너지 회장, 홍성민 에스에너지 사장 등이 그린에너지 산업발전전략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물용 연료전지' 사업설명회 개최

GS칼텍스 사업전략부인과 GS퓨얼셀은 지난 7월 1일, GS타워에서 국내 건설사, 설계사무소 및 도시가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건물용 연료전지'라는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신재생에너지 중 건물용 연료전지가 아파트 및 공공건물 적용에 있어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알리고,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GS칼텍스는 GS퓨얼셀을 통해 지난 20년간 연료전지의 연구 개발을 지속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기회가 확대되었다. 설명회는 배준강 대표의 정부정책과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 및 연료전지 전시물 관람,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직원 자녀 대상 '2009 엄마 아빠 사랑해요' 프로그램 개최

GS칼텍스는 여름방학을 맞아 여수공장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중학교 1학년 자녀 99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박3일간 "2009 엄마 아빠 사랑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GS칼텍스 여수공장 및 서울 본사,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남산타워 및 국립박물관, 청계천 등을 방문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장래 희망과 진로를 함께 설계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설치된 GS칼텍스 수소스테이션에 들러 '수소로 가는 차'에 탑승하여 미래의 신에너지를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멘토로 함께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의 비전 설계 및 진학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한편 GS칼텍스의 '엄마아빠 사랑해요.'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마련되었으며, 작년까지 4년 동안 총 258명의 자녀들이 참가하였다.

여수시 문화예술공원 건립에 박차, 설계자 선정

GS칼텍스는 전남 여수시 시전동 망마산 및 장도 일원에 건립될 문화예술공원의 설계자로 도미니코 페로를 선정했다.

도미니코 페로는 파리 국립도서관 설계자로 EU대법원 청사, 독일 베를린 올림픽 저전기·수영장 등을 설계했으며, 특정 스타일의 정형화된 건축물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여건을 두루 반영하는 친환경 건축가로 널리 알려졌다.

S-OIL,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 기공식



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시설들이 완공되는 2011년 S-OIL은 석유화학부문에서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연산 16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과 연산 58만톤 규모의 벤젠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영업이익률도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베이 S-OIL CEO는 이날 기공식에서 "프로젝트 기간 및 가동 이후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공존·발전하는 S-OIL의 핵심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장의 증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리더로서 S-OIL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동력을 보다 굳건히 하면서 보다 높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IL은 지난 6월 11일 온산공장에서 아흐메드 A 수베이 CEO와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등 내외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 기공식을 개최했다.

S-OIL의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는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 1조4천억원을 투자하여 184,500㎡의 부지에 연산 90만톤의 파라자일렌(Para-Xylene)과 연산 28만톤의 벤젠(Benzene)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2009년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 개최



S-OIL은 지난 7월 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009년도 에스-오일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고객서비스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계명주유소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9개 주유소가 '2009년도 에스-오일 챔피언스 클럽' 주유소로 선정됐다. 챔피언스 클럽에 선정된 주유소에게는 '챔피언스 클럽' 트로피와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S-OIL 수베이 CEO는 이날 시상식에서 "고유가와 경기부진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주유소 운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신 주유소 운영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S-OIL이 장기적으로 주유소 운영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S-OIL·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협약

S-OIL은 지난 7월 1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심사의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 협약을 가지고 온실가스 검증절차를 3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은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11월



부터 2009년 3월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으며, 인벤토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 집계 및 분석 결과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기록·유지관리·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S-OIL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후원

S-OIL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고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 청소년 관악단을 후원한다. S-OIL은 지난 7월 2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발달장애 청소년 관악단 '하트하트윈드 오케스트라'의 희망나눔 콘서트에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에 후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하트하트재단은 이 후원금을 발달장애 청소년 관악단의 각종 연주 활동을 지원하고, 음악적 재능을 지닌 저소득 장애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S-OIL 박봉수 수석부사장은 "하트하트윈드 오케스트라가 제주 국제관악제에 참가하여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재능 있는 장애우들이 음악적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S-OIL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철원 DMZ에서 '어린이 두루미 체험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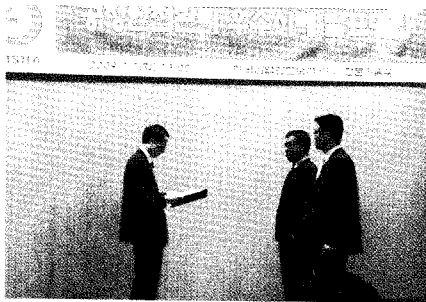


S-OIL이 여름방학을 맞은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천연기념물 지키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쓰-오일은 강원도 철원 DMZ 내 두루미 도래지에서 천연기념물 생태체험 교실 '내 친구 두루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 친구 두루미' 교실은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9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0명을 초청하여 천연기념물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고객 사은 이벤트

S-OIL이 불항기 '가족'을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슈퍼맘, 슈퍼대디들을 응원하기 위해 휴식과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한다. S-OIL은 고객들에게 높은 정서적 공감과 친밀감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광고캠페인 '당신은 슈퍼맨' 컨셉트와 결합을 통해 일관성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고, 불항기 여름휴가를 앞두고 '슈퍼맨'인 고객에게 가족여행과 채증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7가족에게 월드투어 패키지, 슈퍼맨 고향 스몰빌 여행패키지, 허니문 패키지 등과 500가족(1인 4매)에게 CGV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슈퍼맘, 슈퍼대디를 위한 30일간의 세계여행 페스티벌' 이벤트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2일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은상 수상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7월 7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09년 공정안전관리(PSM)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관을 맞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것. 전국 900여 개 PSM 대상 사업장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종 결선에 오른 회사는 4개사에 불과했다.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현대오일뱅크는 정확한 위험 진단 시스템과 200만 인시 공장 무재해 운동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선에서 현대오일뱅크의 공정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한 안전과 김종근 과장은 "공장에서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어 안전사고 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라며 "현대오일뱅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경영에 대한 의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충청남도의 투자 유치 파트너로 활동



지난 7월 8일 현대오일뱅크 생산지원부부장 박병규 상무가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투자유치 협력단 출범식에서 투자유치협력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충청남도 8개 대표 기업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다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2년 동안 충청남도의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위촉식 후 열린 협력단 운영 활성화 감담회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인 경영환경 개선, 신속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올 여름 휴가땀, 부킹(Book-ing)하세요

현대오일뱅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를 통해 휴식도 즐기며 임직원들이 지식도 쌓을 수 있도록 '부킹(Book-ing)'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부킹(Book-ing)'이란 책(Book)과 언제나 진행(-ing)이라는 의미를 합성한 것으로 1년 365일 항상 책과 벗하고, 책을 가까이하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캠페인은 여름 휴가기간 동안 회사가 선정한 3권의 책 가운데서 희망 도서를 택일, 독후감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사내 3백 여명의 차장급 이상 리더급 임직원들이 대상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사전에 자체 도서선정 위원회를 구성, 경영의 미래(게리 허펠), 아웃라이어(말콤 글래드웰), 키오 틱스(필립 코틀러) 등 경영서적 및 자기계발서를 선정하고 휴가를 떠나는 임직원들에게 무상 배포했다.

임직원들이 휴가기간 동안 읽고 제출한 독후감은 심사 후 금상, 은

상, 동상 등 포상자를 선별, 소정의 상품과 함께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총 3,333 명에게 삼삼한 무료주유의 행운을



현대오일뱅크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오일뱅크 주유소에서 '삼삼한 무료 주유'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이벤트 기간 중 주유소를 이용한 보너스 카드 신규 가입 회원에게 1개월 무료 주유권 및 보너스 포인트 등을 주는 행사. 추첨을 통해 총 3,333명이 행운을 받게 된다. 이번 행사는 번거로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사 기간 동안 7만 원 이상만 주유하면 자동적으로 응모된다.

행사 담당자는 오는 9월 15일 주유 내역까지 자동으로 응모되며 주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귀띔했다. 당첨자는 9월 23일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oilbankcard.com)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산본부 엔지니어 60명 해외 연수 실시

현대오일뱅크 생산본부의 엔지니어 60여명은 지난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12차에 걸쳐 일본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및 오사카 ATC그린에코 플라자 등을 방문해 선진 경영 사례를 배운것 특히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서는 도요타의 생산방식(TPS, Toyota Production System)을 체험하고 자동차 공장 혁신 사례를 배워 불행을 넘기는 의지를 다졌다.

생산본부 연수단은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TPS의 이론 강의 및

특강, 현장 견학과 체험 등의 실무 교육을 받았다.

현대오일뱅크 고종완 노사협력팀장은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황과 위기극복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경영진의 방침이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새로 입사하는 생산직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해외 선진 노사관계, 혁신사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트라넷에 리프레쉬 카페(refresh-cafe) 개설

현대오일뱅크가 사내 인트라넷 사이트에 '리프레쉬 카페(refresh cafe)'를 개설해 인기를 끌고 있다. 리프레쉬 카페는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직접 체험한 휴가지, 인근 유명 맛집, 숙박 정보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 체험기, 여행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임직원들은 휴가지 정보를 얻으려 인터넷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닐 필요 없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만 하면 친숙한 동료들이 직접 체험한 알짜배기 여름휴가 정보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

리프레쉬 카페를 통해 올 여름 여행을 계획한 영업전략팀 최종원 차장은 "동료가 전해준 정보를 보니 올하는 남해 다랭이 마을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며 "리프레쉬 카페가 단순히 동료간 피서지 정보 공유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간 소통하고 더욱 친숙해지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시, 올해 상반기 치어 80만 마리 방류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6월 14만마리의 우럭을 대신 앞바다에 방류한 것을 계기로 서산시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전의 '황금어장'을 되찾자는 기치 아래 '황금어장 가꾸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7일 서산시에선 4억3천만원을 투입 조피볼락 40만마리, 넙치 29만마리, 뱀장어 11만마리 등 총 8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66만 마리를 방류한 것에 비해 121%나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주민들이 치어 방류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수산지원의 중요성과 보호의식을 공유했다. 또한 방류된 어족자원이 초기에 고갈되는 것을 막고자 방류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율감시단을 구축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